



대학도서관 자료수장공간 확보를 위한 제언

경북대학교 도서관
최명순

< 목 차 >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및 범위

II. 대학도서관 장서현황과 제문제

1. 대학도서관 장서현황
2. 대학평가와 장서
3. 자료폐기의 제문제
4. 장서보존의 제문제

III. 공동보존도서관 운영의 제문제

1. 공동보존의 의의
2. 공동보존도서관 운영의 제문제

IV. 효율적 공동보존을 위한 선결 과제

1. 효율적 활용을 위한 매체변환
2. 매체에 따라 이용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수서정책 수립
3. 권역별 상호 이용제도의 활성화 기반 구축
4. 공동보존도서관 이관목록 공동관리체제 구축

V.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및 수장공간 확보를 위한 제언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인류는 지식의 발전과 계승을 통해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인류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축적된 정보는 다양한 매체에 엄청난 물리적 공간을 끊임 없이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축적된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여 활용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조직체가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도서관은 매체변환이라는 전환기에 놓여 있지만 양적 성장과 출판량의 급증으로 인한 자료 수장공간 부족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판량의 급증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 추세인데 Appleberry는 “인류의 지식은 150년 (1750~1900), 50년(1900~1950), 10년(1950~1960), 5년(1960~1965)을 주기로 2배씩 증가되어 왔으며, 1965년 이후에는 5년마다 2배씩 증가할 만큼 가속화되고 있고 2020년이 되면 70일 마다 2배로 증가할 것”¹⁾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뒷받침 하듯이 1991~2000년까지 세계 주요 국가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미국 3.4%, 영국 10.8%, 일본 5.4%, 캐나다 5.4%, 한국 2.1%로 나타났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증가량도 1973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8.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도서관도 1996년~2000년까지 평균 8.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²⁾.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급증하는 장서증가와 정보화 관련 시설 등으로 인하여 공간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대학도서관 공간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실성 있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대학도서관 공간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온 공동보존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자료공동보존에 대한 구체적 운영방안 및 제도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각종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대학도서관 공간문제에 관하여 다음 몇 가지 문제점을 들고 있다.

첫째, 늘어나는 출판량에 따른 장서증가로 인하여 모든 대학들이 심각한 공간부족

1) J. Appleberry, "Information Literacy : Liberal Education for the Information Age," *Liberal Education*, 79, 1993, pp.24~29

2) 강미희, “국내도서관의 자료보존 및 폐기실태와 공동보존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석사, 2003.8

문제에 직면해 있다.

둘째, 공간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대했던 전자(디지털)도서관은 관련 장비 등으로 인하여 공간문제를 더욱 가중시켰다.

셋째, 대학평가 시 도서관 평가항목의 문제로 법적으로 허용된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장서폐기를 통한 부족한 자료공간의 확충도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개별대학들이 보존서고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증가하고 있는 장서량으로 인하여 이용자 공간이 잠식되어 열람공간 부족을 초래하였다.

여섯째, 대학도서관들은 수장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신축하거나 중·개축하고 있으나 신축과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족한 대학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계획만 세운 채 실행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동보존도서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제문제를 문헌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동보존도서관 제도가 바람직 한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하는데 개별 도서관 보유 자료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이 충분치 못하여 현재까지 연구성과와 통계를 인용하였다.

II. 대학도서관 장서현황과 제문제

1. 대학도서관 장서현황

<표 1 개별대학도서관 장서통계 및 장서 증가 현황>

2006년말 현재

대학명	장서수	연간증가 률(%)	면적 (m ²)	최소기준 도서관면적 및 충족도(%)	적정기준 도서관면적 및 충족도(%)		비고
서울대학교	2,992,854	114,058	43,113	60,026	71.82	66,713	64.62
고려대학교	1,767,346	83,483	39,777	45,986	86.50	54,537	72.94
연세대학교	1,649,846	85,253	22,059	43,404	50.82	51,623	42.73
부산대학교	1,292,981	63,765	22,764	31,971	71.20	37,434	60.81
경북대학교	2,212,247	118,507	29,316	50,980	57.50	58,936	49.74
동아대학교	1,042,730	39,759	9,224	32,802	28.12	40,196	22.95
영남대학교	1,367,598	58,643	33,966	41,567	81.71	50,757	66.92
전남대학교	954,249	63,826	21,276	35,574	59.81	44,650	47.65
충남대학교	1,212,343	44,743	24,332	35,647	68.26	43,207	56.31
평균	1,610,244	74,671	27,314	41,995	65.04	49,784	54.87

*개별대학도서관 선정기준은 지역거점대학,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지역간 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대상 대학도서관의 자료실 면적과 소장자료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국립대학도서관보> 등에 게재된 통계를 보면 비슷한 규모의 서고 면적과 자료실 면적을 보유한 대학이 작성기준 미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자료실 면적에는 자료수장공간 이외의 열람테이블이나 검색용 PC, 작업공간 등 자료수장 이외의 목적을 가진 공간도 포함되어 있어 순수한 자료공간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자료수장공간의 적정성 여부를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자료 공간을 포함한 전체 도서관 면적을 대상으로 하여 도서관 전체 공간 부족현상을 진단하는 방법³⁾을 따르기로 하였으며 대학도서관 면적 기준에 관하여는 손정표 교수가 제시한 기준안⁴⁾을 따랐다. <표1 개별대학 장서통계 및 장서 증가 현황>에

3) 조용완, “보존도서관 공동설립을 위한 연구”, 「국립대학도서관보」, 제21집, 2003. pp130~131

4) 손정표, “대학도서관 시설 기준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문집」, 제23집, 1995. pp372~381

따르면 최소기준도서관 면적(m^2) 및 충족도(%)는 서울대학교 면적 43,113 m^2 충족도 71.82%, 고려대학교 면적 39,777 m^2 충족도 86.50%, 연세대학교 면적 22,059 m^2 충족도 50.82%, 부산대학교 면적 22,764 m^2 충족도 71.20%, 경북대학교 면적 29,316 m^2 충족도 57.50%, 동아대학교 면적 9,224 m^2 충족도 28.12%, 영남대학교 면적 33,966 m^2 충족도 81.71%, 전남대학교 면적 21,276 m^2 충족도 59.81%, 충남대학교 면적 24,332 m^2 충족도 68.26%로 최소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적정기준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연간 장서증가량을 감안할 때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수년 이내에 도서관의 모든 공간이 자료 수장공간으로 변하여 도서관 본연의 기능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 대학도서관은 매년 5% 이상씩 장서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를 보존해서 이용시킬 수 있는 공간은 해를 거듭 할수록 축소되어 향후 수년 이내에 신축 또는 증축이나 어떠한 형태이든지 보존도서관 건립 등 특별한 해결책을 세우지 않는 한 도서관 구석구석 책을 쌓아 두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공간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신축이나 증축을 위한 예산확보는 열악한 대학재정을 감안하면 쉬운 문제라 할 수 없다.

2. 대학평가와 장서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이 국가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사회의 당면과제는 평가 사업이며 대학평가의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대다수의 교육선진국에서는 대학평가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차별성과 탁월성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대학교육협의회가 설립되면서 자율적인 대학평가제를 본격 도입하여 시행해왔다. 대학도서관 평가요소는 대학도서관의 구성요소인 사서, 장서, 시설과 전산화 등이 도서관 기능의 수월성, 효율성, 책무성, 자율성, 협동성을 제고하여 시대적 감각에 맞게 이용자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때 대학 전체 영역을 평가하는 데 따른 영역간의 조화, 평가 기술상의 제한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현행 대학도서관 평가기준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전제하면서 도서관 관련 항목에 대한 문제점 중⁵⁾ 바람직한 장서 개발의 결림돌이 되는 문제점만 살펴보고자 한다.

5) 김진수,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실제와 도서관 평가문제”, 「도서관문화」 제36권 제3호, 1995.5~6 pp.21~22

<대학종합평가 기준항목 중 도서관 관련내용 평가항목>6)

- ①도서관의 도서 확보 실적이 우수한가?(8)
- ②도서관 열람 좌석수는 적절한가?(4)
- ③도서관의 국내외 정기간행 학술지 구독실적은 우수한가?(4)
- ④세출중 도서구입비의 규모가 적정한가?(4)

첫째, 평가항목7)이 도서관의 제요소인 사서, 장서, 시설, 도서관 경영을 질적·양적으로 골고루 평가할 수 있도록 마련되지 못하고 장서, 열람석, 예산 등의 양적인 평가에만 치중되어 질적인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양적 평가는 장서수 늘리기에만 급급하게 하여 수장 공간 부족을 가속화 하였다.

둘째, 질적인 평가와 양적인 평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평가를 위한 장서확보 계획으로 질을 더욱 저하시킬 것이며 적절한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 공간 운영을 어렵게 할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서의 대학도서관 평가기준은

첫째, 대학도서관의 법정기준을 시류에 맞게 제정하고 대학도서관이 양적·질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조정하여야 한다.

둘째, 평가항목에 별무이용 복본자료가 필요로 하는 도서관에 관리 전환될 수 있도록하여 관리전환기관과 수령하는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가하여야 한다.

셋째, 대학도서관 상호협력을 위한 기구의 개발과 협동체제 구축에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모든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6) 대학종합평가 기준항목중 도서관 관련내용이 시행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동소이한 실정이다. 그리고 도서관의 중요성에 비추어 대학평가기준항목중 도서관 관련 평가기준의 점수(20/50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평가항목도 도서관의 중요한 요소를 골고루 반영하지 않고 일부분만 제시되어 있다.

7) 1999년 기준 대학평가기준항목 중 도서관 관련 평가항목은 대학평가 6개 영역의 99개 항목에 부여된 총 500점 중 가중치 23점으로 4.6%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 도서관 장서량은 도서관 부분 전체 배점(23점) 중 10점을 차지하고 있다.

3. 자료폐기의 제문제

폐기라는 용어는 학자들이나 관련기관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되어 왔다. Roy는 폐기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폐기는 이용량을 증가시켜 폐기를 통해 잘 관리된 자료는 불용자료와 섞여 있을 때 보다 이용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

둘째, 폐기는 이용 만족도를 제고시키는데 장서를 적절히 폐기함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장서의 검색효율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와 시간을 절약해 주며 결과적으로 장서 및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킨다.

셋째, 도서관 직원의 시간을 절약하게 한다. 도서관직원은 신착도서 서가배열, 반납도서재배열, 장서점검 등의 장서관리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서폐기를 통해 장서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넷째, 자료폐기에 따른 공간창출은 새로운 기술적 활용 가능성을 높인다.

고 하였는데 실제 대학도서관이 처한 자료폐기의 어려움을 Carter와 Bonk, Slote의 주장을 포함하고 우리의 실정을 고려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장서수에 대한 집착

둘째, 대학평가기준에 양적 평가를 지향하는 현행기준은 불용성 복본자료의 폐기 를 어렵게 한다.

셋째, 법적 책임, 행정적·제도적 결함

넷째, 책을 아끼는 전통적인 사고

다섯째, 폐기된 자료에 대한 요구의 불확실성

여섯째, 폐기기준 설정의 어려움

이러한 폐기의 어려운 문제점을 극복하여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바람직한 폐기기준을 마련하여 폐기를 시행하는 것이 공동보존도서관 설립의 선행과제이다. 그리고 폐기된 개별도서관 자료 모두를 공동보존도서관으로 이관해서는 안된다.

4. 장서보존의 제문제

19~20세기에 걸쳐 생산된 종이기록물은 열화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 훼손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방대한 대학도서관 자료는 인류의 문화유산이자 정보 원임을 생각할 때 이를 위한 보존대책으로서 종이의 열화원인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여 보존환경, 소독, 탈산처리 등 보존처리 메커니즘을 통한 최적의 보존관리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보존환경관리는 종이기록물의 보존 및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유형에 따라 적당한 보존 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보존환경조건은 계절에 관계 없이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동보존도서관 운영에 자료의 보존환경에 수반되는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기록보존가협회(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SAA)는 “보존은 ①문서, 기록물, 필사본의 유지, 관리, 보호를 위해 충분한 시설을 제공하는 본질적인 책임 ②기록물의 보수, 유지, 보호를 위한 특수한 수단과 방법이다”라고 정의했고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 IFLA)의 「도서관 자료보존 및 보호원칙」은 자료보존을 ‘보존’, ‘보호’, ‘복원’의 개념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는데, ①보존은 도서관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서고, 시설, 인사, 정책, 기술, 방법 등의 문제와 재정문제를 포함한다 ②보호는 도서관 자료를 훼손, 손상,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정정책 및 실무 외에도 전문가가 개발한 방법 및 기술까지를 의미한다. ③복원은 자료를 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문가의 기술과 판단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 자료를 서고 공간속에 서가 배열을 끝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욱 공동보존도서관에서 관리해야 할 도서는 출판년도, 열화정도 등을 감안할 때 멸실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이 절실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주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20세기 들어 보존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것은 1966년 이태리 국립도서관이 플로렌스 대홍수로 대부분의 자료가 훼손된 사건을 계기로 한다.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손상된 자료의 복원과 자료의 보호·보존방법 및 자료 보존 원칙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많은 실증적 연구들은 도서관 자료의 훼손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하고 있다. 1973년 미의회도서관은 1700만권의 장서 가운데 34%인 600만권이 완전히 사용불가능 혹은 보수 불가능한 상태로 손상되었다고 평가했다. 1985년 예일 대학은 자료보존에 13%가 즉각적인 보호처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은 자료의 훼손·변질·유실은 자료 보존에 대한 중요한 위협이며 자료보존에 대한 무관심이 인류의 문화적, 역사적·지적 유산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연구결과⁸⁾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보존도서관 운영을 위한 보고서에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하는데 폐교의 건물상태를 고려할 때 다각적인 보존 환경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동보존도서관의 숫자를 지역적 안배에만 치중하다보면 보존을 위한 제반비용, 운영비용 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도서관에서 공동보존도서관에 이관할 자료의 등급을 몇 단계로 구분하고 복본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존할 자료와 지역 단위 공동 보존도서관에 배치해야 할 자료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귀중한 자료의 멸실 방지를 위한 보존대책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자료보존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보존관련 장비와 재료들이 수입되기 시작한 최근의 일이나 선진국에서는 1970년 이후 훼손된 자료의 복원과 손상·훼손 예방프로그램 및 자료보존활동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III. 공동보존도서관 운영의 제문제

1. 공동보존의 의의

공동보존도서관이란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협정에 의하여 참가도서관들의 이용빈도가 낮은 자료들을 공동으로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한국도서관협의회 1996) 공동보존도서관의 용어에 대한 선행 정의를 살펴보면 윤희윤(1999)은 보존을 자료의 파손을 자연·방지하거나 손상된 자료의 지적 내용을 보전하는 적극적이고 거시적인 업무로 표현하고 있으며 보호는 자료의 원형을 오래 유지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과정에 화학적 또는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존보다는 소극적이고 미시적인 기능임을 강조하였다. 공동보존도서관과 보존도서관은 혼용하기 쉬운데 개념상 다음과 같은 차이점⁸⁾을 갖는다.

첫째, 공동보존도서관은 도서관들의 상호협력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도서관을 말하며 보존도서관은 각 개별도서관에서 보존하고자 하는 자료를 학내·외부의 장소에 별도의 보존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8) 강미희, 전계서에서 재인용. pp8-9

9) 조옥수,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참조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석사, 2003

둘째, 공동보존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은 공동으로 보관하고 보존하여 정 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존도서관은 개별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자료의 보관과 보존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셋째, 수집대상자료는 공동보존도서관의 경우는 참가도서관이 각각 이관한 자료들이며 보존도서관은 자관에서 선정한 자료가 된다.

보존도서관과 보존서고를 구별하여 비교하여 보면

첫째, 설치 장소에 따른 구별로 보존도서관은 원 도서관과는 다소 떨어진 독립된 장소에 건립된 시설을 의미하며 보존서고는 원 도서관 내부의 활용공간에 이용이 낮은 자료를 별치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보존서고가 자료를 소장하여 자료의 비치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 보존도서관은 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일련의 행위를 포함하는 도서관적 기능이 강조되므로 보존서고와 뚜렷하게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 현장에서는 보존서고를 보존자료실이라 명명하여 사용하는 곳도 있다. 이상으로 공동보존도서관을 정의하여 보면 두개 이상의 도서관이 지역별 또는 주제별, 관종별에 따라 상호협력제도나 정책으로 공간부족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상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 중 공동보존할 자료의 선정기준을 정하여 선정된 자료를 공동으로 보존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리적으로 참여도서관의 중심지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존도서관은 도서관의 서고 공간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자료들을 별치하여 보존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여기에서 이용률이 낮은 자료라 함은 혼손자료와 오·파손자료, 대상이용자에 비해 복본수가 많은 자료, 출판년도가 비교적 오래되고 수정·개정판이 출판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 공동보존도서관 운영의 제문제

개별도서관은 기준에 의거 선정된 자료를 자료공동보존소로 이관함으로써 자료 소장공간의 적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장서관리를 위한 업무량을 감소시

킬 수 있으며 미 이관 자료의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관을 통해 공동보존소에 이관된 타기관 자료의 이용으로 자료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또한 예산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공동보존을 계획하고 실행하기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보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많은 연구와 제언이 있지만 아직까지 탁상공론에 머물고 있는 것은 시행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보면

첫째, 공동보존소도서관 건립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권역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건립과 운영에 따른 비용이 달라지겠지만 현재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되고 있는 모형은 광역단위 권역별 건립이 운영적 측면이나 이용효율적 측면에서 권장되고 있다. 권역별 공동보존소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건축비, 각종 설비 및 장비비, 인력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를 산출하여야 한다. 예산 확보를 위한 정밀한 비용산출에 한계¹⁰⁾가 있어 자료구입비를 제외하고 기준 100만권 정도 소장도서관의 건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비용산출은 가능할 것이다. 이때 유의할 점은 기존도서관 운영과는 다르게 원거리 이용을 위한 장비(차량, 통신)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매년 소요되는 운영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해야 하는가?

셋째, 또한 개관시 대량으로 이관 되는 개별도서관 이관자료의 협동목록작성을 통한 자료정리와 DB구축 비용을 들 수 있다. 협동목록의 작성은 통하여 동일한 자료의 중복보존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접근성을 최대화 하며 그 자료에 대한 서지 정보를 단시간 내에 파악이 가능토록 하여 이용자 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다.

넷째, 보존자료의 열화 등으로 인한 보존대책과 탈산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10) 본 연구에서는 공동보존소도서관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부지매입비, 건축비, 장비구입비 등)을 건립예정지의 부지 매입비 등의 소요예산 산출에 대한 한계가 있어 상세하게 산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1개 권역에 세워질 공동보존소도서관설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과 건축, 장비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개별적으로 500억 정도 소요되리라고 보면 전국을 5~7개 권역으로 나누었을 때 2,500억~3,50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 본 연구의 소요예산은 어디까지나 개략적인 추정치임을 밝힌다.

많이 소요된다. 현재 이관 예상되는 자료의 지질은 출판년도 등을 감안할 때 산성화로 황변화 현상과 인장강도가 저하되어 부스러지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 예상되므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보존을 위한 설계와 복원 수선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IV. 효율적 공동보존을 위한 선결 과제

1. 효율적 활용을 위한 매체변환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전자매체에 익숙치 않은 이용자를 위해서는 인쇄자료의 보존과 이용도 중요하다. 매체를 변환하여 보존하는 것 보다 인쇄자료 그 자체로서 보존하는 것이 가치적 측면에서 바람직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동보존도서관으로 이관될 원본자료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용요구도 등을 분석하여 원본으로 보존할 자료, 원본과 변환매체를 동시에 보존할 자료, 매체변환자료로만 보존할 자료 등을 구분하여야 한다.

첫째, 먼저 원본으로 보존할 자료는 자료의 복본수도 많고 전국단위보존시설에서 보존되는 영구보존용 자료가 충분하며 원본으로 이용시키다가 훼손정도가 심할 경우 폐기처분해도 무방할 자료를 말한다.

둘째, 원본과 변환 매체를 동시에 보존할 자료는 원본자료의 가치적 측면이나 희귀성 등을 고려하여 원본은 보존하고 매체변환자료는 활용시키는 자료를 말한다.

셋째, 매체변환자료만 보존하는 자료는 원본 보존 가치보다는 활용가치가 높은 자료로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보존소요공간을 최소화하는데 의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넷째, 매체변환자료는 시청각자료 및 전자자료 등을 포함하여 모든 자료를 망라하여야 하며 원본으로만 시청각자료나 전자매체를 보존하다가 매체변환시기를 놓쳐 자료가 사용 불능상태가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침으로 원본자료 보존에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 하고 활용효율을 높이고자 함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유일본 및 희귀자료의 실태를 파악

하여 중요한 보존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귀중한 자료가 관리누락·유실됨이 없이 보존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매체변환을 통하여 보존도서관에서 보존할 자료가 차지하는 소요면적은 최소화 하면서 이용효율은 높이고 귀중한 지적문화재가 소실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매체변환 계획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매체에 따라 이용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수서정책 수립

최근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정보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도서관 개념의 패러다임을 소장에서 접근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초고속 정보망을 기반으로 최신의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텍스트 정보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정보까지 수집하고 가공·축적하여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여 인터넷상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보매체의 발달과정은 도서관의 자료수집 대상이 인쇄자료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도서자료 (전자매체 포함)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도서관 환경의 변화와 수집하는 정보 매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구입하는 인쇄매체의 수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도서관 자료로서 인쇄자료의 이용가치가 일부 학자들의 예측처럼 현격히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인쇄자료의 증가와 비도서자료의 증가는 이용자 접근의 다양성은 확보하였으나 대학도서관 수장공간 부족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간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동보존도서관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 선결과제로서 도서관 자료 구입 시 매체에 따른 이중적 구매를 지양하고 정보의 성격에 맞는 효율적 매체를 선택하여 구매하는 수서정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현실이다. 정보자료의 활용성과 특성에 맞는 수서정책이란 예를 들면 도서형태의 태권도 교본이 다양한 색상으로 아무리 잘 편집되었다고 하더라도 비디오나 CD 등 시청각 자료 만큼 이용효율을 높이기는 어려우므로 자료의 특성과 이용에 맞는 수서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예산집행이 매체에 따른 이중 구매를 지양하여 도서관 자료수장공간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3. 권역별 상호 이용제도의 활성화 기반 구축

적극적인 상호이용제도의 활성화는 예산절감의 효과는 물론 개별도서관의 자료증가에 따른 부담을 원칙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권

역별 전국적 상호이용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 수서정책은 개별도서관의 자료 수장공간 활용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다.

대학도서관 상호협력체제는 대학의 교육, 연구 및 학습에 필요한 학술정보자료를 공유·활용하여 적극적인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권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협력 및 역할분담에 대한 장·단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를 활성화 하면 공동보존도서관으로 이관될 자료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협의체가 구성되어 추진되어야 할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첫째, 분담수서를 통한 개별도서관 장서개발(단행본) 및 확충

둘째, 외국학술지, 전자자료의 공동구매

셋째, 상호대차제도 활성화를 통한 정보자료 공유 및 유통을 위한 연계망 구축, 서비스 시스템의 통합운영

넷째, 종합적 통합 디지털도서관 시스템 구축

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자료의 복본수를 줄이고 이용자층이 제한적인 자료를 공동구매하여 공동보존도서관으로 이관될 자료의 수량을 줄여나가야 한다.

4. 공동보존도서관 이관목록 공동관리체제 구축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자료 수장공간 확보를 위해 도서관을 신축하거나 증·개축을 통해 부족한 수장공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도서관의 신축과 증·개축은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므로 시의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서량의 증가는 새로운 시설의 증설뿐만 아니라 효율적 서비스를 저해하고 과중한 인적 및 재정적 관리비용까지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용대 효과면에서 도서관은 증가하고 있는 장서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동보존도서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공동보존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앞서 공동보존도서관에 이관될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을 통하여 바람직한 공동보존도서관의 설립모형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보존도서관 설립모형 개발은 대단히 중요하다. 모형개발이 잘못되어 과다한 예산 책정이 설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모형개발 시 특

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자료의 상태와 이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중·소 어느 권역 공동보존도서관에서 보존해야만 보존(탈산처리 등) 비용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별무이용자료이면서 원본가치도 별로 없는 자료를 모든 권역 공동보존도서관 마다 소장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관종별, 권역별로 수장공간현황과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개별도서관의 이관자료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동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몇가지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첫째, 출판년도, 원본가치 등을 고려하여 어느 권역에서 공동보존할 자료인지 선정해야 한다(보존비용 고려).

둘째, 전국적인 도서관 현황을 참고하여 관종별, 권역별 구분을 망라한 개별도서관 상호간 도서관 자료 관리전환사업¹¹⁾을 심도있게 진행해야 한다. 시·군단위 공공도서관들은 자료가 부족한 반면 대학도서관에서는 별무이용자료로 자료수장공간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도서관 외에도 개별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검토하여 관리전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이때 이관하여 주는 도서관이 평가 등에 장서수 등으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셋째, 이러한 목록을 참고로 시·군단위 도서관과 협조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되어있는 리·동에 설치된 마을문고 등에 소설류를 비롯한 사전류(국어사전, 한한사전, 생활백과사전 등)등 실제 생활과 문화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리·동단위 마을 문고에는 실제 제대로 된 한한사전 한권도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때에도 이관 시켜주는 도서관의 장서수 보전방법은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도서관통계¹²⁾에 따르면 전국학교도서관 장서수가 64,777,980권 도서실·도서관 수가 10,297개관으로 1개관 평균 6,29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은 예산사정이 열악하여 실질적 자료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도서관으로 관리전환 시에는 대상 학교에 따라서는 도서

11) 도서관 자료관리전환이란 국·공립도서관 장서는 국유재산관리에서 비품으로 분류됨으로 법적 책임을 감안한 법률적 표현임.

12)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 2006. pp344-346

내용, 맞춤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료교환,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사업을 국내에만 한정해서는 안된다. 공동보존도서관에서 관리할 장서목록을 활용하여 세계 각국의 국가 중앙도서관이나 한국어학과가 설립된 대학도서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우리문화의 홍보나 우리나라 학술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각국 언어로 된 자료 기증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또 복본수가 많은 별무이용자료부터 해외공관 등을 통하여 활발한 기증운동을 벌여야 한다.

여섯째, 대학내에는 대학원생, 교수 등을 비롯하여 수 많은 연구인력이 있다. 이들에게 공동보존도서관에 이관될 장서목록을 배부하여 장기대출내지는 평생대출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에 따라서는 자료수장공간의 한계로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기관이나 퇴임교수들로부터 기증받은 자료 중 라이프사이클이 비교적 긴 문학작품이나 인문·사회계통의(절판자료포함) 미등록 자료도 대단위로 폐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 자료는 폐기하기 전 위와 같은 여러 채널을 통하여 기증운동을 벌이는 것이 환경보호나 학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장기대출이나 평생대출 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표제지나 속표지에 다음과 같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면 기관홍보를 겸하여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대출자의 갑작스런 신상변동이나 소재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관내 이용자의 이용요구가 있을시 반납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자료는 ○○ 대학교도서관 소장자료로 소중하게 활용하시기 바라며 대출자의 연락사항 변동이 있을 시 ○○ 대학도서관 대출실로(TEL)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교 도서관장

V.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및 수장공간 해결을 위한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량과 출판량의 증가로 대학도서관장서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간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전자도서관의 출현은 공간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대학도서관에서는 보존서고운영이나 중·개축, 신축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실질적 대안인 중·개축과 신축은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정부부처에서 공동보존도서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주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데 예상되는 연구용역 결과는 공동보존도서관을 어디에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설립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인 것 같다. 이러한 때에 공동보존도서관 건립 시 선결하고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몇 가지를 제언하여 공동보존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일조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개별도서관 이관자료 공동목록 작업과 관종을 떠나 전국도서관의 자료 수장공간에 대한 현황과 통계 작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자료는 바람직한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모형제시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공동보존도서관 설립과 대학도서관 자료수장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료의 보존상태나 가치 등을 고려한 대·중·소 권역 단위 공동보존도서관 설립이 요망된다.

둘째, 공동보존도서관 이관목록을 활용하여 전국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서관 자료 관리전환제를 입법화하여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 상대적으로 열악한 마을문고, 학교도서관 등에 기증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넷째, 매체변환의 필요성이 있는 자료와 원본보존 자료를 구별하여 매체변환을 통한 보존과 활용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다섯째, 권역별 협력체제를 활성화하고 중복구입을 최소화 하여 공동보존할 자료

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여섯째, 대학내연구자들에게 관련 주제분야 공동보존도서관 이관대상자료를 장기·
평생대출해 줄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공동보존도서관 이관 목록을 참고하여 복본수가 많은 자료 중 우리나라의
학문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료는 해외 공관 등을 활용하여 한국관
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도서관이나 국가대표도서관 등에 기증되어질 수 있
도록 범세계적 기증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여덟째, 이관, 관리전환, 기증 등을 한 자료가 대학평가기준등에 걸림돌이 되지 않
도록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하며 활발히 참여한 대학에는 평가시 가점이
주어지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정보자원의 평균화를 꾀할 수 있으며 대학도서관 자료
수장공간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소요
예산을 줄일 수 있어 설립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 참고문헌은 각주를 대신함.